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총일교회 가정예배부

## 설교

애들아, 혹시 시장이나 놀이동산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부모님과 잠깐 떨어져 본 적 있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하며 눈물이 날 만큼 무서울 때가 있지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떨어진 사건이 나와요.

마리아와 요셉은 매년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가족과 함께 성전에 갔지요. 절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은 예수님이 다른 친척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놀란 부모님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흘 동안 찾았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곳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앉아 질문을 주고받으며 말씀을 배우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어린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놀랐어요. 마리아가 “애야,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라고 하자, 예수님은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나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말씀을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애들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워요.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학교나 집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삶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요!”

## 예배 순서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찬 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 이

말 씬 봉 독 누가복음 2:41~52절 다 같 이

설 교 하나님의 집에 머무신 예수님 설 교 자

말 씬 나 눔 ..... 다 같 이

합 심 기 도 ..... 다 같 이

축 복 기 도 .....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 찬송과 축복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 찬 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기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기를 즐거워하게 해 주세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순종하게 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나눔

1. 예수님은 왜 성전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2.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